

민주주의 심장 '호남정치의 맥' 다시 뛰게 하자

4월총선 새로운 정치적 미래 견인할 인물 국회로 보내야
지역의 미래 위해 '묻지마 지지' 보다 경쟁구도 형성

2020년 21대 총선의 해가 밝았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시계의 초침이 빨라지면서 "호남 정치의 맥을 다시 뛰게 하자"는 광주·전남 민심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키며 다당제의 길을 열었지만 4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의 호남 정치 현실은 '지리멸렬' 그 자체라는 평가다. '녹색 태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소수 야당들로 전락했고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는 그 실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는 이제 정치권의 변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1대 총선은 호남에 있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호남의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들을 21대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시대를 이끌었던 호남 정치의 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의 냉철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보다 면밀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 막판까지 신중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분열로 몰락하면서 민주당 독주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호남 유권자에게는 더욱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과반을 넘어서고 있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썩쓸이'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했듯이 '묻지마 지지'는 정치적 경쟁 구도를 붕괴시켜 결국 호

남 정치의 퇴보를 부른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묻지마 지지'는 호남 정치의 민주당 종속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결국, 민주당과 맞설 제3지대 신당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특점은 언제나 경쟁 체제보다 부정적 결과를 도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호남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회로 진출시켜야 하지만 정치적 역량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디딤돌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선 및 공천 과정에도 지역 유권자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전반적 검증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일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전력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독주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 위원장 중심의 기득권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 민심의 눈 높이에 맞는 공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호남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총선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조 등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공동 공약 제시는 물론 정치적 비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엄한 경자년 첫 일출 '부'와 '예지력'을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의 첫 해가 떠오르고 있다. 1일 새벽 보성군 울포해변에서 1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2020년 새해 첫 해돋이를 바라보며 한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총선 지역구 지지정당, 민주 39.4%·한국 32.2%

광주일보 등 지역 대표 언론사 '한신협' 전국 1만 명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47.7%·부정 49.3%
총선 선택 기준 ... 인물 29%·공약 25%·정당 24%

제 21대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7.2%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자유한국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50%대를,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40%대를 기록하며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광주·전라권인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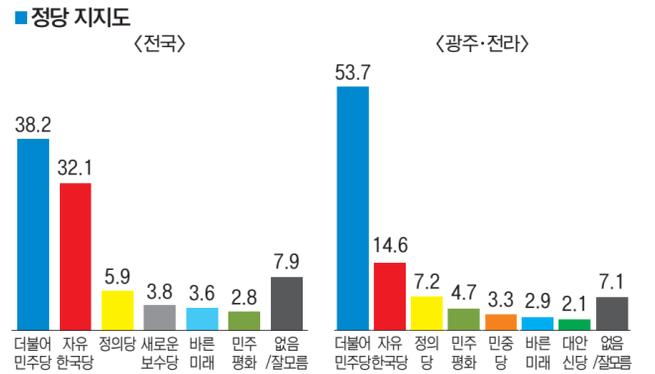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이하 한신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

뢰수준에 표본차 ±0.98%포인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총선 지역구 투표 성향'에서 민주당이 39.4%로 가장 높았다.

한국당은 32.2%를 기록했다. 새로운보수당과 정의당이 각각 4.6%로 뒤를 이었고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도 각각 3.3%, 2.1%로 나타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각각 1.7%, 1.3%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후보 투표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31.5%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한국당은 30.7%로 나왔다. 정의당이 12.7%를 얻어 지역구 투표 성향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보수당(6.8%)과 바른미래당(3.5%)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2%로 한국당(32.1%)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이어 정의당 5.9%, 새로운보



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순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음에는 긍정 평가로 보는 응답자의 합계가 47.7%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49.3%)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이 꼽은 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으로는 경제 문제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9%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 반대로 긍정 평가 부분은 남북관계가 41.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

로 조원씨앤아이(가)가 2019년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만2천명(총 통화 시도 21만5290명·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 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 소설 이한솔 '전지재인지'
- ▲ 시 선혜경 '빛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지'
- ▲ 동화 장나현 '틀니를 찾아서'

2020 새해 특집 32면 발행

- 5·18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1면
- 문향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 ▶13면
- 임형진 교수 '잊혀진 역사 마한' ▶14면
- 도올 김용옥 '전남 인재육성' ▶16·17면
- 경자년 쥐띠 이야기·운세 ▶21면
-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24·25면
- 도쿄 올림픽을 향해 떠나다 ▶2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광주·전남 대표은행 Since 1968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금융

2020 庚子年

새해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희망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은행